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 “김무성 대표, 민주화 투사 YS의 ‘정치적 아들’ 자격 없다”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줄곧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가 고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회고하며 애도하는 일이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아들”을 참칭하는 모습은 참으로 불편하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에 온 생애를 바친 불굴의 투사였다. 서슬 퍼런 박정희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다 국회에서 제명당했고,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2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고인에게 민주주의는 가치와 신념을 넘어 목숨과도 같은 의미였다. 누군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를 목숨처럼 여겨야 마땅하다.

지금 김 대표는 어떠한가. 민주주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커녕 민주주의 퇴행에 선봉대 노릇을 하고 있다. 거짓과 왜곡, 억지와 불통으로 점철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게 대표적 사례다.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줄곧 검정제로 발행되다 유신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강행은 유신의 유물을 되살려낸 것이나 매한가지다. 김 전 대통령이 목숨 걸고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를 무(無)로 돌리는 최일선에 김 대표가 있는 것이다.

김 대표가 고인을 “진정한 의회주의자”로 상찬하며 야당을 향해 “민생 최우선” 운운한 대목에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숙청당할 때 김 대표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거듭했다.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데도 저항하기는커녕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다. 이래놓고도 의회주의를 거론하다니 엄치가 없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겨냥해 스스로를 후계자로 포장하려는 모양이나,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김 대표는 결코 ‘민주화 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이 될 수 없다.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비록 몸은 군을 떠나지만 마음은 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퇴역할 당시 최윤희 합참의장에서 했던 말이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다.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 캣' 도입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이 거물 무기중개상 함 모 씨와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선 도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아직 위독한 상황인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공식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7시간 등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각하시킨 것이니까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찬반 논란끝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 문제에 대해 조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차기환 씨를 비롯한 일부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청와대 조사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하기로 했다.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차과장중고차 010-5556-6885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경향신문] ‘최경환 인사청탁 의혹’ 증진공, 부총리실에 감사 무마 시도

증진공의 1차장은 황씨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말 황씨 채용 당시 증진공 인사담당자였던 L씨에게 여러 차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부총리실에 빨리 보고를 해서 감사원장, 사무총장에게 연락이 가 이 사안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어젯밤에 이미 한 상태” 등의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 측에 감사 무마 청탁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곧 황씨 채용 과정에도 최 부총리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L씨는 경향신문과 만나 “1차장과 최경환 의원실 2비서관이 증진공과 의원실을 잇는 소통 창구였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 휴대전화에 이런 정황이 다 들어있는데 이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면서 지난해 11~12월 1차장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L씨는 “당시 내가 인사담당자이긴 했지만 실제로 황씨 채용 과정에서 박철규 증진공 이사장과 1차장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사건 담당 검사가 내게 ‘당신이 정점 아니냐’고 말해서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측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던 7처장의 채용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2씨를 처벌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 ‘꿰어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설] 박 대통령, 세월호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각 정부부처에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들은 어떤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부결되자 퇴장해버렸다고 한다. ‘특조위가 왜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하려 하느냐’는 게 여당 추천 위원들의 불만인 듯하다. 이들 말대로라면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사생활’을 했다는 말이다. 4월 16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침몰 시간은 일과시간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 시간에 ‘사생활’을?

그러나 안전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조사 대상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참사 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행적과 대응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침몰 상황이 텔레비전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와중에, 수백명이 숨지도록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모든 국민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한다”며 “특조위에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이상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의 모든 참모들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사실을 상기하며 말이다.

[국민일보] [현장기자] ‘농민 부상’ 사과 거부한 경찰청장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의 취재후기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4일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부상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농민 부상과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재차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강 청장은 신중론으로 ‘사과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당한 작전 중에 벌어진 불의의 사고쯤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 말대로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남의 발을 밟거나 빗길에 우산을 잘못

움직여 행인 눈을 찔러도 사과하게 마련이다. 자신에게 달려든 사람을 때린 경우라도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최근에는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음에도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농민 부상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살수차가 물을 뿜을 때 전방 카메라는 앞을 제대로 못 본다. 살수차는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최소 15초간 물기둥을 내리쬐었다. 경찰은 이런 장비를 그동안 각종 시위 진압에 사용하면서 위험관리 인력도 두지 않았다. 이래도 잘못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독 합리성을 강조하던 강 청장이 돌연 ‘독불장군’이 된 이유가 궁금하다.”

궁금하긴 뭐가 궁금한가. ‘사과하면 큰일난다’며 입 단속하는 어느 누군가 때문이라는 것 즙을 삼척동자마저 아는데.

[세계일보] [단독] 총선 노리는 기관장들… 경영공백 ‘만성’

한국시설안전공단은 5개월째 이사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다. 장기장 전 이사장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저점인 E등급을 받은 뒤 자진사퇴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직무대행 체제의 법적 한계 탓에 공단의 신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올 스톱’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도 오랜 경영공백 상태에 빠져있다. 세계일보가 정부 부처 산하 316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23일 현재 12곳이 기관장 공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수장 부재의 여파로 이들 공공기관은 신사업 추진이나 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영공백 현상이 갈수록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공공기관의 장들은 조만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크고,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들도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연말이나 연초 기관장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이 20곳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좋은 사람이 없다. 없을 리가. ‘각하에 대한 충성도’가 미흡하기 때문이겠지. 즉 ‘진실한 사람’ 품귀 현상 때문이다.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 박중현] 20년 뒤 4대 강을 보면

박중현 경제부장이 칼럼에서 “내가 이랬지. ‘그거 보세요. 3년만 지나면 다들 잘했다 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무척 좋아하더라고...”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만나 나누는 대화를 전하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밝았다고 인용한다. ‘4대강 사업’이 급격히 재평가된다고 자기들은 믿는 모양이다. 박중현 부장도 그러하다. ‘복권’됐다고 표현했다.

물론 “대규모 역사(役事)가 다 그렇듯 이 사업도 결함이 없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 재정사업이 불가피했지만 22조 원이 모두 꼭 필요한 데만 쓰이진 않았을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1조 원 넘게 과

징금을 낸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불만이 크다. 보를 세워 물의 흐름을 바꾼 만큼 언제든 환경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과징금 낸 업체의 불만만 현실이 아니다. '막힌 물길'로 인한 환경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박종현 부장 이걸, "5년 안에 큰 업적을 내고 싶은 대통령의 욕망"이라며 '단임제의 한계' 운운한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4대강에 대해 미화하고 싶은 분들, 거르지 않은 4대강 원수를 한 컵 마신 뒤 쓰고 말하길 바란다.

[서울신문] [특별기고] "자유민주주의 향한 헌신·희생 국가발전 커다란 밑거름 될 것"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 영어 통역을 담당했던 문민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박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주목된다. 외환위기 당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증언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주로 한·미 동맹 현안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두 분 사이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199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서 동남아와 같은 외환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미국이 지원하겠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청와대 대통령직무실에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화를 걸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전화가 걸려 온 것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거두절미하고 "각하, 오늘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금융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심하게 응징받을 것입니다"라고 대본을 읽듯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밴쿠버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됐던 김 전 대통령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반기문 당시 외교안보 수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한 부분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빌 클린턴의 며칠 후 태도 변화, 그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 농간으로 한국에 IMF가 왔다는 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고문은 눈길을 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대국이 강국이라도 전혀 풀리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을 무용담처럼 들려줬다고 한다. 그래서 밋상이 있을까? 문민정부 한미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은 정설에 가깝다.

[조선일보] 초등생이 "무슨 꿈 꾸셨기에 대통령 되셨나요" 묻자 "난 숙면 취해 꿈 안꾼데이"

이런 비사도 있다. 조선일보를 읽어보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외국 원수들, 특히 미국 대통령 만나고 오면 '기 싸움' 한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며 "(한번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서 '내가 꼭 놀러줬다고 하더

라"고 전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조깅을 할 때 지기 싫어 전력 질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타고난 승부욕 때문이리라. 특히 김대중(DJ) 전 대통령과의 경쟁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많이 남겼다. 측근들에 따르면 YS는 언론사 카메라가 DJ 쪽으로 향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럴 때 즐겨 사용한 방법이 비서진을 불러 귓속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 기자들은 다시 YS 쪽을 향하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1980년대 당시 YS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자주 찍혔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뒷날 '무슨 얘기를 하시더냐'는 기자 질문에 "별 얘기 없었어. '딴다. 문 좀 열어라'고만 하더라"라고 했다.

이런 일화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10년 8·15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자신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함께 초대하자 전 전 대통령에게 다 들리도록 "전두환이는 왜 불렀노. (본인이 처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데이. 죽어도 국립묘지도 못 간다"고 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어진 오찬에서 전 전 대통령이 "와인 더 없느냐"고 했더니 YS는 "청와대에 술 먹으러 왔나"라고 소리쳤고, 그런 YS의 말을 듣다 화가 난 전 전 대통령이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한다.

측근들에게는 '다짜고짜 화법(話法)'을 많이 썼다. YS 비서로 정치를 시작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YS는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니 그거 알재?'라고 물어보곤 했다. 우물쭈물하면 '한심한 놈'이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회상했다. '픽션' 같은 논픽션도 적지 않게 만들어 냈다. 1992년 대선 유세차 속초를 방문했을 때 참모들이 써준 연설 원고에 "속초에는 함경도 분들이 많다"고 쓰여 있었다. 월남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YS는 실제 연설에서 "속초에는...속초에는..."이라며 몇 차례 머뭇거리다 "강원도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했고, 참모들은 거의 '기절'했다. '함경도'가 잘못 쓰인 것이라 생각하고 망설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말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수업을 했던 일화도 유명하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여학생이 "할아버지는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셨기에 대통령이 되셨나요?"라고 물었다.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꿈을 꿔다"는 정답을 기다리던 학생들에게 김 전 대통령은 "저는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데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약자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포용으로 빛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앙일보] 빈소 앞에서 발길 돌린 YH 여공 ... "YS는 심정적 동지"

지난 22일 오후 8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섰다. 1979년 8월 YH무역농성사건 당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S씨였다. 올해 환갑이다. 그는 취재진과 정치인들로 북적이는 빈소엔 들어가지 않은 채 5분가량 머물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김 전 대통령은 일종의 심정적 동지였어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멀리서나마 배웅하고 싶었어요."

36년 전 그녀는 '스물네 살 가장'이었다. 가발 제조업체인

YH무역에 다녔다.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한 달에 이틀 쉬었다. 그러면 손에 쥐이는 돈이 월 9만원.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의 끼니부터 학비까지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폐업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공장 기숙사에 전기며 물이며 다 끊기고 나니 ‘삶이 끝난다’는 말이 실감 나더군요.” 그는 1979년 8월 9일 동료 여공들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민당사로 무작정 찾아갔다.

“눈물 반 콧물 반으로 당사에 들어가 김 총재를 처음 만났습니다. 김 총재가 우리에게 건넨 첫마디가 ‘모두 환영합니다’였어요.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도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옆에 있던 동료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김 전 대통령은 “배가 든든해야 힘을 낸다”며 여공들에게 비빔밥과 물 등 식사를 제공했다. 부인 손명순 여사도 당사로 찾아와 빵과 우유를 돌렸다.

하지만 농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른바 ‘101진압작전’. 11일 새벽 2시 경찰 1200여 명이 신민당사로 들이닥쳤다. 여공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강당 문을 막고 창문에 매달려 저항했지만 거기까지였다. S씨는 “팔다리를 붙잡힌 채 ‘닭장차’로 끌려가는데 까만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눈물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진압 직후 스물한 살 된 여성 근로자 김경숙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항의해 당원들과 농성을 벌이던 김 전 대통령은 10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됐다.

농성에 참여했던 정만옥(59)씨는 당시 김 전 대통령과 당사 강당에 둘러앉아 ‘아침이슬’을 부르던 기억을 떠올렸다.

“김 총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음이 안 맞는 거예요. 어린 여공들이 입을 가리고 웃었죠. 우울하고 막막한 날의 연속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고 적막이 흐르자 갑자기 막내 여공 한 명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강당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죠.” 김 전 대통령은 그런 여공들을 다독이며 “울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YS는 왜 군부세력과 손잡았을까. 참 아이러니하다. (YS의 생전 실언 중에는 ‘아이러니’를 ‘아이노리’로 말한 사례도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열세를 뒤집고 이기는 정치인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도전할 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YS는 DJ에게 통렬한 패배를 맞는다. 1차 투표에서 과반에는 미달했지만 1등을 차지한 YS는 기고만장했다. 그러나 2등의 DJ가 3등의 이철승 지지표를 모으는 데 성공해 YS는 역전패를 당했다. 그때까지 DJ를 얹잡아 보는 데 익숙(?)했던 YS였기에 패배는 더욱 아팠다. 그러나 그는 당원과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열심히 DJ 지원 유세를 했다. 그는 후에 토론했다. “나 혼자 지방 유세를 다녔다. 수행원도 없고 청중

도 별로 없었다. 밤마다 술을 마셨다. 때로는 소리 지르며 울었다. 나락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YS는 그때 세 가지를 배웠다고 했다. 첫째, ‘정치란 이길 때까지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 둘째, 막강한 여권 세력을 상대로 ‘혼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 DJ를 무서운 경쟁자이면서 민주화 동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가 DJ와 손잡고 민주협을 만든 것도 그 교훈(?) 때문이었고 ‘배신’의 비난과 ‘동지의 이탈’을 무릅쓰고 3당 합당(1990년)을 강행하고 결국 대통령이 된 것도 그 결과였다. YS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비록 정치군인과 손잡고 대통령이 됐지만 정치군인을 단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하나회를 숙정한 것이 ‘배신’에 대한 속죄였던 셈이고, 한편으로는 DJ를 이기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YS가 DJ로 인해 배운 것이 있다면 DJ도 YS에게 배운 것이 있다. 그 역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관한 셈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는 YS가 3당 합당을 통해 성공했다면 자기라고 5·16 세력인 김종필과 손잡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DJP 연합 체제를 만들어 대권 장악에 성공했다. YS와 DJ의 ‘열세에서 이기는 방식’은 노무현에게도 전수(?)됐다. 노무현은 그 나름의 연합군을 만들거나 집산 이합 전략을 가동해 이회창호(號)를 좌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자, YS의 정치적 승부수를 대결 논리에서 보자면 3당 합당은 ‘신의 한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구조에 끼친 해악은 실로 대단했다.

[한겨레] “3당 합당뒤 호남 고립·지역균열 심화… 지금까지 이어져”

“3당 합당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평가는 냉정한 편이다. 유권자(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4당 체제를 인위적으로 허물어버린 지역정치의 결정타란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김옥 배재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사실은 3당 합당으로 영호남 갈등을 더 키웠다. 4당 체제의 지역 분할은 건강한 측면이 있었는데 3당 합당은 특정 지역을 왕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3당 합당이 없었다면 다당제가 정착하고, 거대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가 아닌 다른 선거제도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1987년 양김 분열로 인한 영호남 균열과 이듬해 총선에서 나타난 4당 체제의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이 3당 합당 명분으로 동원되지만, 오히려 인위적 3당 합당은 영남 대 호남,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전국적 지역균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질식하는 출발점을 3당 합당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상훈 대표는 “3당 합당 직전의 4당 체제를 혼란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특히 재벌, 군, 관료들이 여의도 정치를 무서워했던 때는 그때가 유일했다”고 짚었다. ‘여소야대’ 구도는 여당이 야당의 개혁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노태우 회고록>엔 “여소야대 시절인 1988년에는 야당 주도로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기 중 입법된 양의 70%를 넘을

정도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실제로 5공 청문회, 토지공개념 등의 정치적 성취들은 4당 체제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최장수 대변인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저서에서 “당시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여당은 필요한 입법을 하기 위해 때로는 공화당과 손잡고, 두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타협의 정치를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일 통합(3당 합당)을 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계속했다면 우리의 정치 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같은 강요된, 조성된 ‘양당제’는 한국 정치를 선과 악의 구도로 이원화했고 나아가 제3의 목소리 즉 다양성의 가치를 송두리째 짓눌러왔다.

[한국일보] "무심코 던진 말, 성폭력 피해자들에 2차 피해"

“‘늦은 시간에 왜 돌아다녔니’, ‘술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2차 피해를 주었더라고요. 성폭력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제2회 폭력 예방교육 ‘올해의 강의’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현구 대구서부경찰서 112상황실 경감은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족 등 주변인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이에요. 어렵게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냈는데, 가족들도 놀라서 순간 ‘거긴 왜 갔냐’는 식의 비난을 하게 되죠. 피해자가 말문을 닫으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의 편에서 격려해야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삼성엔지니어링, 전 직원 한 달 무급 휴직

해외사업 부실로 올해 3분기 1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한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전 직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가 수주와 유가 하락, 공사 운영 미숙에 따른 해외사업 부실은 국내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여서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삼성엔지니어링과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 위안부, 일본군 부대 따라다녀” EBS사장 거론 이명희 교수가 집필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3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김정합격본에 있던 이 문장은 마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닌 것처럼 서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교학사는 최종본에서 이 문장을 “한국인 위안부는 군 주둔지에서 착취당하였을 뿐 아니라 전선에 동원되어 강제로 끌려다녔다”로 수정했다.

유력한 EBS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그 주인공. 교육방송 노조와 언론노조는 ‘EBS 이념편향 사장 선임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명희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1%도 채택되지 못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이자, ‘연예인의 70%가 좌파’라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는 극우 이념편향 인사”라며 “EBS의 주시청자는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과 방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에게 EBS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 오늘의 날씨

이번 주 잦은 비 소식과 함께 날씨 급격하게 추워지겠다. 일단 오늘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갈수록 기온 크게 떨어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금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치겠다. 낮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4도, 대구 12도로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의 칼럼

오늘은 중앙일보에 실린 “역사전쟁 발발이 제기하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선임연구원의 칼럼 일부를 인용하며 마무리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The lady is not for turning).”

2017년 국가 발행 국사 교과서가 출판사가 발행한 8종의 국사 교과서를 대체한다. 이 계획은 퇴행적인 나쁜 생각이라는 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국내외 반응이다. ‘불도저’ 별명이 붙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한때 온건·중도의 길을 모색했다. 지금은 아니다. 적어도 역사 문제에 대해선 강경하다. 이렇게 말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魂)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혼은 신학의 문제가 아닐까.

사실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는 어느 정도 좌편향이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의 교사·학자에게서 진보 편향성이 발견된다. 또 한국에서는 교과서가 좌편향이어야 좌우 균형이 잡힐 수 있다. 남자들의 의무 군 복무와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은 우익 압력이 센 나라여서다. 여러 대조적인 견해를 접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는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게 교육이다.”

오늘 순서 마무리한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